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 레시피

▶ 발행인 : 교장 오 향 주
▶ 주 관 : 교감 조 민 숙
▶ 편집인 : 교사 이 미 화
▶ 펴낸곳 : 행안초등학교

• 579-830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륜길 18 • 연구실 584-1205 • <http://www.ha.es.kr>

2015년 제 3호

발행일 2015. 5. 29.(금)

사랑과 정성이 풍풍풍 샘솟는 1학년



5월에는 사랑과 정성이 샘솟을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였다. 어린이날 이벤트를 위하여 선생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든 새콤 달콤한 사랑의 약, 상장과 엽서,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연필을 준비하였다. “고맙습니다.” 라고 귓속말로 이야기 하며, 외락 안기고 가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통합교과 ‘가족’ 책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색종이로 카네이션 접기, 부모님께 감사 엽서 쓰기, 카네이션 비누 만들기, 부모님께 드릴 상장과 효도 쿠폰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활동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활동하는 마음이 참 곱고, 예뻐다.

통합교과 시간의 배움을 통하여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훨씬 북 만들기,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나비 만들기, 색종이를 이용하여 꽃 만들기, 씨앗에 이름을 붙여주고,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1학년 어린이들이다. 화분에 씨앗을 심은 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니 16개의 다른 이름의 새싹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화분의 새싹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하루열거기를 시작하는 1학년! 새싹의 모습을 매일 관찰한 후, 그림으로 표현하고 간단하게 한줄 편지쓰기 활동까지 해냈다. 이렇듯, 사랑과 정성이 샘솟는 활동을 통하여 1학년들은 조금씩, 천천히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2학년의 함께 살아가기 활동 ‘무럭무럭 자라라, 옥수수야!’

식물의 자람을 꾸준히 관찰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2학년 학생들은 텃밭에 옥수수를 심었다. 정글의 법칙에 나온 사랑수수, 맛있게 쪄 먹을 수 있는 감자 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후보로 나왔지만, 결국 옥수수로 결정되었다. 2학년 모두가 옥수수 한 그루씩을 나누어 들었다. 흙을 파고 이랑을 만든 후, 검은 비닐을 씌우고 가운데 구멍을 판다. 파인 곳에 옥수수 모종을 가져 와 한 손으로 고정시키고 흙으로 빈 공간을 채워 옥수수가 잘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 2학년에게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옥수수를 심기 전 세심하게 살피며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옥수수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힘들어도 신기해하며 즐겁게 했다. 심은 후 각자의 옥수수에 이름을 지어준 후 팻말을 직접 디자인하여 꽂아 주었다. ‘귀요미’, ‘해적’ 등 재미난 이름들이 많았다. 그 후 아이들은 아침, 점심시간 등 하루에도 여러 번 텃밭으로 간다. 조금 더 자란 키, 더 많아진 잎, 튼튼해진 줄기를 관찰하며 행복해 한다. 오늘도 2학년 학생들은 옥수수를 관찰하며 훌쩍 자랄 옥수수와 기대기를 해보고, 함께 수확한 옥수수를 팝콘으로 만들어 나누어 먹을 생각에 웃음꽃이 핀다.



3학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내 고장 부안 map

무심코 스쳐지나갔던 길, 도로들. 우리가 매일 학교에 오고 가지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 적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고장 ‘부안’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5월 3학년 친구들은 우리가 사는 고장 ‘부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장 부안을 소개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와 하교를 하는 길을 조사하여 ‘안전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지도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모동별로 지역을 나누어 탐방조사를 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함께 모여 ‘행안 안전 지도’를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부안’의 중심지(군청, 부안초, 상설시장, 터미널, 마트, 보건소 등)를 구석구석 탐방하여 우리 고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모동별 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협동지도를 완성하였다. 생각보다 날씨도 덥고 오랫동안 걸어야 해서 다리도 아팠지만,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어서 피로도 잊은 채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협동’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 고장 부안을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4학년’

학교 텃밭에 심은 너와 나의 작물들이 각자의 모습을 뽐내며 무럭무럭 자라더니, 드디어 ‘우리’ 4학년의 텃밭을 풍성하게 가득 채웠다. 정해진 시간에 줄자와 한 살이 관찰일지를 양손에 들고 텃밭으로 향한다. 하얀 꽃과 노란 꽃, 손톱만한 열매부터 엄지손가락만한 열매까지 각자 모습은 달라도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릴 날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꽃과 열매의 색깔, 개수, 크기, 줄기와 잎의 길이를 기록하며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재어보면서 식물의 자람에 서로 뿌듯해하고 있다. ‘오감만족 자연놀이’ 프로젝트는 작물 수확 때까지 꼭 이어질 예정이다.

사제동행 ‘녹색꾸러기’ 동아리는 5월 ‘자원’을 주제로 하여 Up-cycling 화분을 만들었다. 쉽게 버려지는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 식물을 심고 장난감으로 디자인을 더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했다. 교실 뒤편에서 싱그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5월, 우리 4학년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소중함을 알게 된 5학년의 5월 이야기

이번 오월에는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문화유산 방문프로그램 그리고 교실 밖 수업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고, 간직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소중한 내 친구, 소중한 내 가족”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 함께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았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조금씩 실천하고자 다짐했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5주 5시간동안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산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옛 유물이나 문화재를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의미를 생각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서천 국립 생태원으로 교실 밖 수업을 실시하였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다양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날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잘 살고 싶어요! 6학년의 더불어 살기 3부작 프로젝트

나와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더불어 살기 3부작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환경’을 소주제로 각 주제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 뒤 조사와 토론을 거쳐 한 편의 주장하는 글을 쓰고 나누는 일련의 활동이다. 지난 달 1부에 이어 이번 달에는 2부 ‘인간과 동물’을 주제로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인간의 알권리와 동물의 자유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진중하고 사려 깊은 대화가 오갔다. 2시간 이상 계속된 토론회 활동 가운데 인간의 알권리와 동물의 자유권이 분명하고 천명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어느 한쪽의 근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의 과정까지 이르렀다. 결국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자 ‘국립공원’이나 ‘사파리’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후 작성한 주장하는 글은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점과 풍성한 근거가 있는 의미 있는 글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작은 교실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작은 전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이 쓴 주장하는 글은 학기 말 학급 축제 시 글쓰이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드립니다.

